

Dryden의 찬양시에 나타난 군주관

송 낙 현

영국 왕정복고기(the Restoration Period)의 대표적 문인 John Dryden의 시에 대한 평가는 20세기에 들어와서 차차 회복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그의 시는 아직도 대다수의 독자에게 저항감과 반발심을 일으키게 한다.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독자에게는 더구나 말할 나위도 없다. 그 주요한 이유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첫째로 그의 시는 아무래도 시같지 않다는 것이다. 여러 해설가들이 Dryden과 신고전주의(Neoclassicism)시의 성격을 해명하고, 시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바꾸거나 넓히도록 계몽해 줬지만, 여전히, 비개성적이고, 논설적이며, 연설적인 Dryden의 시는 우리 마음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우리가 시에서 기대하는, 그리고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신비감이 없고, 너무도 말이 많고 산문적이다. 이러한 산문적인 시, 또는 진술의 시(the poetry of statement)의 묘미를 터득하려면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런 많은 공부를 기꺼히 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는 것이다. 둘째로 인유(allusion)가 많아서 Greek 및 Latin 문학을 비롯한 서구 문학, 성경, 영문학등을 상당히 알고 있지 않으면 인유를 알아차리지 못하며, 따라서 신고전주의 시의 멋을 알 수 없다. 이상적으로는 17세기 영국 지식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 만큼의 문학적 지식을 갖추면 좋겠으나, 이것은 외국인, 특히 동양인에게는 너무 무리한 주문일 것이다. 서양의 지식인들은 대학에 들어 가기 전에 이미 Latin 문학을 다 통달하고 있었다. 셋째로 신고전주의시의 주제(subject)는 대부분이 공적(public)인 것으로서, 시인 개인에게 특유한 관심사가 아니라, 그 시대, 그 사회의 많은 독자에게 공통적인 관심사, 즉 그 당시의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사항들이 주로 취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비록 뛰어난 문학 작품은 시대를 초월하는 의미를 지닌다 하더라도, 그 당시의 사회상과 관심사는 현재의 독자, 특히 외국의 독자에게는 너무 거리가 멀고 힘든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Dryden에게만 국한 된 것은 아니고 신고전주의의 모든 시인의 시에 해당되었지만 특히 Dryden에게만 볼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그가 상당한 수의 찬양시(panegyric)를 썼다는 것일 것이다. 여러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영문학도는 Dryden의 시를 전혀 읽지 않을 수는 없다. 그래서 대개 읽히는 것은 그의 가장 걸작품이라 할 수 있는 *Mac Flecknoe*나 *Absalom and Achitophel* 같은 풍자시(satire)이다. 찬양의 시로서는 *Ode to St. Cecilia's Day*가 읽힌다. 사실 이 작품은 찬양시의 대표작으로서 읽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작품 중에서 비교적 짧고 읽기 쉽기 때문에 읽히는 것 같다. 17세기 이후에는 신(God)이나 추상적인 이상을 찬양하는 찬양가 외에 찬양시라는 것은 쓰이지 않았고 Dryden의 그것과 같이 권력자를 찬양하는 시는 멸시 받게 되었다. 아무리 왕이라하더라도 하나의 개인을 극도로 찬양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시인의 이권을 위한 철면피한 아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Dryden이 상당수의 군주에 대한 찬양시를 썼다는 것, 더구나 Cromwell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를 찬양한지 얼마 안되어 Charles가 왕위로 복귀하자 그것을 축하하는 찬양시, *Astrea Redux*와 *To His Sacred Majesty*를 썼다는 것은 Dryden의 인격을 의심케하며 그 극단적인 찬양의 표현은 독자에게 반발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같은 신고전주의 문인인 Samuel Johnson도 이런 점이 마땅치 못하여 다음과 같이 혹평했다:

...in the meanness and servility of hyperbolic adulation I know not whether, since the days in which the Roman emperors were deified, he has been ever equalled.... When once he has undertaken the task of praise he no longer retains shame in himself, nor supposes it in his patron. He had all forms of excellence, intellectual and moral, combined in his mind, with endless variation; and when he had scattered on the hero of the day the golden shower of wit and virtue, he had ready for him, whom he wished to court on the morrow, new wit and virtue with another stamp. Of this kind of meanness he never seems to decline the practice, or lament the necessity: he considers the great as entitled to encomiastic homage, and brings praise rather as a tribute than a gift, more delighted with the fertility of his invention than mortified by the prostitution of his judgment. It is indeed not certain that on these occasions his judgment much rebelled against his interest. There are minds which easily sink into submission, that look on grandeur with undistinguished reverence, and discover no defect where there is elevation of rank and affluence of riches.¹⁾

1) *Lives of the Poets*, ed. G.B. Hill (3 vols., Oxford, 1905), I, pp. 399-400. Quoted by Arthur W. Hoffman in *John Dryden's Imagery* (Gainesville: Univ. of Florida Press, 1962), p. 2.

Dryden의 인격에 대한 이와같은 모욕적인 평가는 그의 극단적인 찬양의 예를 몇 개만 보더라도 아주 당연하게 보인다. 그의 최초의 시인 *Upon the Death of Lord Hastings*에서, 젊어서 죽은 Hastings를 애도하면서 그의 어학 실력이 뛰어난 점을 과장해서, 그가 Alexander 대왕보다 더 위대하다고 칭찬한다 :

Rare linguist, whose worth speaks for itself, whose praise,
Tho' not his own, all tongues besides do raise!
Then whom great Alexander may seem less,
Who conquer'd men, but not their languages. (15-8)²⁾

또한 그가 만년(晩年)까지 살았더라면 로마의 저명한 위인 4명을 합친 것과 같은 덕망을 쌓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한다 :

O, had he died of old, how great a strife
Had been, who from his death should draw their life?
Who should, by one rich draught, become whatever
Seneca, Cato, Numa, Caesar were;
Learn'd, virtuous, great; and have by this
An universal *metempsuchosis*. (67-72)

Cromwell을 찬양한 *Heroic Stanza*에서도 그를 Alexander와 같이 위대하다고 추켜 올리고(13연)³⁾, 또 전쟁의 신 Mars를 추방시키는 Jupiter 신과도 같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20연). Cromwell을 찬양한지 겨우 일년 만에 Charles 2세의 복귀를 축복한 *Astrea Redux*에서 Dryden은 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든 고귀한 존재에 왕을 비유하고 있다. 그리하여 Charles는 인류의 아버지 Adam(114), Typhoeus에게 잠시 옥좌를 뺏겼던 Jupiter신(37~38), 아들의 반란으로 추방된 David 왕(79), 생명의 근원인 태양(61)등에 비유될 뿐 아니라 직접 간접으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되기도 한다.

How great were then our Charles his woes, who thus
Was forc'd to suffer for himself and us! (49-50)
The Prince of Peace would, like himself, confer
A gift unhop'd without the price of war: (139-140)

- 2) 본논문에서 Dryden의 시는 모두 George R. Noyes편, *The Poetical Works of John Dryden*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50)에서 인용했음.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시의 시행을 뜻함.
3) 괄호 속의 숫자 다음에 “연”이라 표시된 것은 해당 시의 stanza의 번호를 말함. “연”이란 표시가 없는 경우는 모두 행(line)을 뜻함.

그리하여 우리는 얼핏 보면 Dryden이 아무 사람에게나 무분별한 찬양의 "prostitution"을 범하고 있다는 Johnson의 인상에 동의하고, 그의 모든 찬양시를 무가치한 것으로 저버리기 쉽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Dryden의 찬양시 속에는 그나름대로의 원리원칙이 있고, 특히 국가원수, 즉 군주(君主)를 찬양하는 시에서, 군주가 그 국가 사회에서 행하는 기능에 관한 Dryden의 견해를 찾아 볼 수 있다는 가정하에 그것이 무엇인가를 고찰하려는 것이다.

대개의 유명한 시인이 그러하듯이 Dryden도 그의 사상에 있어서는 독창적인 것이 없었다. 정치, 종교, 문학 등 각 분야에 있어서 그의 사고의 경향은 전통적이며 보수적(conservative)이었다. 이러한 보수적인 태도는 Pyrrho나 Montaigne와 같은 회의론(scepticism)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L.I. Bredvold의 주장은⁴⁾ Phillip Harth에 의하여 상당한 수정을 받았으나⁵⁾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Dryden은 매우 겸손하여 새로운 생각들을 관대히 받아 들였기 때문에 그의 생각에는 일관성을 찾기 힘들며, 문학, 정치, 종교에 관한 태도를 자주 바꾸어서 쫓대없는 인간이라는 비난을 언젠가 받아왔다; 그러나 그 변화는 방향이 항상 일정했다는 점에서 그의 태도는 시종 일관했다고 볼 수 있다:

Dryden's changes in politics and religion were really consistent in that they were in the same general direction, in the directions of a more and more conservative view of life. Some of his greatest poems command a special interest as an expression of a conservative temperament. And he was impelled towards this conservatism, not only by the course of political developments in his time, but also by the essentially conservative tendency of the sceptical tradition.⁶⁾

Dryden은 물론 철저한 회의론자는 아니었다. 사실 회의론자가 보수주의이건 급진주의이건 간에 어떠한 입장을 취한다는 것은 모순으로 보인다. 철저한 회의론자라면 그 아무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이다. Dryden의 회의론은 왕립협회(Royal Society)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의심을 위한

4) L.I. Bredvold편 *The Best of Dryden* (New York: The Ronald Press Co., 1933)의 "Introduction," pp. xxix-xxxiv 참조.

5) Phillip Harth, *Context of Dryden's Thought* (Chicago: The Univ. of Chicago Press, 1968), p. 12 참조.

6) Bredvold, pp. xxviii-xxix.

의심이나 반이성론(anti-rationalism)이 아니라, 의심없는 진실로 도달하기 위한 방법이며, 독단론을 배척하는 온건한 자세의 발로이다. 온건한 자세는 급진적 개혁주의보다 보수주의에 기울어진다. 여기에 회의론자와 보수주의의 유사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회의주의이기 때문에 보수주의인 것이 아니라 온건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보수주의와 방법론으로서의 회의론에 이끌리는 것이다.

Dryden은 국가원수가 바뀔 때마다 그의 정치관이나 종교를 변경한 변절자로 인정되어왔다. 그러나 그의 정치관에 있어서는 왕정복고 이후로부터 만년에 이르기까지 군주정치체제(monarchy)를 변함없이 지지했다. 1697년에 Virgil의 *Aeneis*를 번역하고 헌납하는 글에서, "I am of Montaigne's principles, that an honest man ought to be contented with that form of government, and with those fundamental constitutions of it, which he received from his ancestors, and under which himself was born."이라고 썼는데⁷⁾, 이것을 그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영국의 군주제도를 지지한다는 말이 된다. 그것을 확실히 하려는 듯이 끝이어서, "Montaigne는 마음대로 할 수만 있다면 Venice 공화국에서 태어났었기를 원했지만, 나 자신은 여러 이유 때문에 Venice는 싫고 영국인으로 태어난 것을 훨씬 더 다행으로 여긴다"고 덧붙이고 있다.⁸⁾

Dryden이 이와같이 그의 초기 시로부터 만년의 글에 이르기까지 시종 일관 왕을 찬양하거나 군주제도를 지지한 것은 그가 왕을 숭배했기 때문이거나 제관시인(poet laureate)으로서의 직책 때문만은 아니다. 그 진정한 까닭은 세습적 군주제도만이 그 국가 사회에 평화와 질서를 유지할 수 있으며, 평화와 질서가 있어야만 학문과 예술과 모든 문화가 번영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Charles 1세를 목베어 죽인 잔인한 동족상잔의 내란과 왕정공백기(Interregnum)의 혼란과 청교도 정치하의 무미건조함을 겪은 많은 영국인들은 왕이 다소 못났더라도 왕을 없애거나 교체시키기 위해서 혼란을 일으키는 것 보다는 왕을 받들고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편이 국민에게 유리하다고 믿었다. 이 시대의 대표적 사상가인 Hobbes도 *Leviathan*의 제 1부, 제13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힘과 지혜가 마련해 주는 것 외의 만 안정 보장책이 없이 살아야 하는 시대는, 모든 사람이 서로 원수가 되어버리

7) Noyes, p. 493.

8) Ibid., pp. 493-4.

는 전쟁 때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그 결실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산업이 일어나지 못한다. 따라서 농업도 없고 해외무역도, 수입품도 없다. 크고 편리한 건물도 건축되지 않으며, 큰 힘이 필요한 물건을 움직이고 이동시키는 기구도 없다. 이 세상에 관한 지식, 시대 조류에 대한 보고, 예술, 문학, 사교가 존재하지 못한다. 그리고 무엇 보다도 나쁜 것은 계속적인 공포와 비참하게 죽을 위험만 존재한다. 그리고 인간의 삶은 외롭고, 가난하고, 더럽고, 야만스럽고 짧다.”⁹⁾ Dryden은 바로 이런 상태를 두려워하여 *Absalom and Achitophel*에서 경고한 것이다 :

If they may give and take where'er they please,
Not kings alone (the Godhead's images)
But government itself at length must fall
To nature's state, where all have right to all. (792-4)

Dryden의 정치시의 목적은 시종일관해서 국가 사회의 질서와 평화유지였으며, 그것을 위하여 한편으로는 국민에게 왕을 존경하고 복종하도록 계몽하고, 또 한편으로는 군주에게 그의 특권을 남용하지 말고 국민에게 인자함과 관용으로 대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이다. 국민과 왕이 단합하여 안녕 태평한 국가를 이루려면 국민과 국민의 대표자들은 지나친 권리의 주장을 하지 말아야 하며, 군주도 법을 무시하는 군주의 특권의 행사를 삼가해야 하는 것이다. 1678년에 쓴 *All for Love*에 대한 헌사(Epistle Dedicatory)에서 Dryden은 이상적인 군주를 Charles 2세 속에 상징하고 이상적 군주상을, “A king, who is just and moderate in his nature, who rules according to the law, whom God made happy by forming the temper of his soul to the constitution of his government, and who makes us happy, by assuming over us no other sovereignty than that wherein our welfare and liberty consists.”라고 그리고 있다.¹⁰⁾ 그가 바라는 정치 형태는 민권과 왕권이 완전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었다. *Absalom and Achitophel*의 759행에서 810행에 걸쳐 피력하고 있는 Dryden의 정치관이 바로 이 균형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위에 인용된 *All for Love*의 헌사에서 그는 이러한 균형을 당시의 영국

9) 필자의 번역임.

10) John Dryden, *All for Love and The Spanish Friar*, ed. William Strunk, Jr. (Boston and London: D.C. Heath and Company, 1911), p. 5.

정치에 상정하고 이 정치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so equal and so well-poised a government, a government which has all the advantages of liberty beyond a commonwealth, and all the marks of kingly sovereignty without the danger of tyranny."¹¹⁾ 이러한 균형이 깨어질 때는 군주에 의한 전횡적 독재정치에 빠지거나 소위 민중의 대표라는 자에 의한 무법적 폭도 정치로 타락하는 것이다. 그 어느 쪽도 용납될 수 없지만 Dryden은 후자를 더 미워한다고 말한다: "Both my nature, as I am an Englishman, and my reason, as I am a man, have bred in me a loathing to that specious name of a republick; that mock-appearance of liberty, where all who have not part in the government are slaves; and slaves they are of a viler note than such as are subjects to an absolute dominion."¹²⁾

Dryden의 이와 같은 군주관과 정치관은 왕정복고 초기의 찬양시와 *Absalom and Achitophel* 같은 정치시에 가장 잘 나타나고 있으나, 그 이전의 시, 즉 *Upon the Death of Lord Hastings*와 *Heroic Stanzas*에서도 그 일부를 엿볼 수 있다. 전자는 Dryden이 아직 Westminster 교에 재학중이던 18세 때 쓴 그의 처녀작이다. Milton의 *Lycidas*와 같이 동문의 죽음을 애도하는 비가(elegy)인데, Milton은 애도를 계기로 하여 그의 문학과 종교관을 피력한 데 비하여 Dryden은 오로지 애도의 표현에 전념하고 있다. 아직 젊은 학생의 습작 정도이므로 뚜렷한 사상이 안보이는 것은 당연하며, 더구나 정치관 같은 것은 있을 리 없다. 그러나 천연두 때문에 Hastings의 몸에 생긴 물집을, 형이상학적 기상(meta-physical conceit)으로 묘사한 부분에는 정치적 현상의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다:

Blisters with pride swell'd, which thro' 's flesh did sprout,
Like rose-buds, stuck i' th' lily skin about.
Each little pimple had a tear in it,
To wail the fault its rising did commit:
Who, rebel-like, with their own lord at strife,
Thus made an insurrection 'gainst his life. (57-62)

물집들이 자만심으로 부풀어 올라 반역도들 처럼 주인과 싸워서 그의 생명에 반란을 일으켰다는 비유는 *Absalom and Achitophel*에서 왕에 대

11) Ibid.

12) Ibid.

항하는 선동자들을 묘사하기 위하여 효과적으로 구사한 비유와 매우 흡사하며, 자만심으로 부른 물질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에게 반역을 일으킨 Satan을 연상시킨다. 이 작품이 쓰인 1649년까지 영국은 수년간 청교도의 반란에 의한 내란을 겪어왔고 그 해 초에 Charles 1세는 Cromwell의 세력에 의해 처형되었다. Dryden이 이 시를 쓸 때 이러한 영국의 정치 상황을 생각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49행 및 50행, 즉, "The nation's sin hath drawn that veil, which shrouds/Our day-spring in so sad benighting clouds."에서 "the nation's sin"은 영국민이 신성한 국왕을 죽인 죄를 말하고, "our day-spring," 즉 태양은 Hastings보다 Charles 1세를 의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Astrea Redux*에서도 국왕을 태양으로 비유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Dryden은 그의 최초의 시를 쓸 때부터 이미 국민의 군주에 대한 항거를 큰 죄악으로 간주했었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 처녀작을 쓴지 10년후 Dryden은 Charles 1세를 죽게했던 Cromwell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의 공적을 찬양한 *Heroic Stanzas*를 쓰고, 그 후 불과 1년만에 다시 Charles 2세의 복귀를 환영하는 *Astrea Redux*를 써서, 변절자, 또는 기회주의자라는 인상을 쉽사리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왕정복고를 환영한 것은 Dryden 혼자만이 아니고, 온 영국민이 다 함께 환영했으며, Cromwell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와 왕정복고를 축하하는 시를 다 같이 쓴 시인도 Dryden 뿐 만은 아니었다. 예컨대 Edmund Waller는 Cromwell의 힘을 찬양하는 *A Panegyric to My Lord Protector*와 Charles 2세의 복귀를 찬양하는 축시, *To the King, Upon His Majesty's Happy Return*을 썼다. Dryden이 Waller와는 달리, Cromwell의 생전이 아니라 사후에 찬양시를 썼다는 것은 그가 이것을 통하여 사적인 이득을 노렸다는 의심을 덜 해 준다. Dryden은 Cromwell이 왕에 대한 반역자이기는 하나 영국민을 위해서 이루어 준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사후에 찬양한 것이다. Cromwell의 공적 중에서 가장 높이 평가한 것은 61행 이하에서 볼 수 있드시 영국에 평화를 회복시켰다는 것이다: "Peace was the prize of all his toils and care,/Which war had banish'd, and did now restore. (61-62)" 여기에서 Dryden은 Cromwell이 많은 전쟁을 수행했지만 그 사실을 강조 안하기 위하여 그의 싸움을 "toil and care"로 표현했고 그것의 목적도 오로지 평화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왕정복고 이후에 Dryden의 사상을 사로잡았던 복귀, 회복,

재생의 개념이 이미 이 시에서 “did now restore”라는 말로 나타나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17연(65-68)에서도 Cromwell의 무력은 Ireland를 구원하여 “safety”를 갖다 주었으며, Scotland에게는 순종과 교양을 안겨 주었다고 했고 11연, 12연에서도 그의 싸움은 싸움을 종식시키기 위한 싸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Our former chiefs, like sticklers of the war,
First sought t' inflame the parties, then to poise:
The quarrel lov'd, but did the cause abhor,
And did not strike to hurt, but make a noise.

War, our consumption, was their gainful trade;
We inward bled, whilst they prolong'd our pain;
He fought to end our fighting, and assay'd
To stanch the blood by breathing of the vein. (41-48)

이렇게 해서 영국에 평화가 회복되고 나니 영국의 국세가 해외로 뻗어 나가는 상황이 21연 이하의 여러 연에 걸쳐 열거된다. 전에는 여세계 영국에 맞서든 Holland도 유순해지고(21연), France와 Spain은 서로 다투어 영국의 호의를 얻으려 하다가(22연) France가 호의를 획득하여 Spain보다 유리한 입장이 되었고(23연), Cromwell의 지휘하에 영국인은 적도 이남까지 진출하여 황금을 얻어 온다(31연)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 평화를 유지해야지만 영국의 힘이 해외로 진출하고 번영을 누린다는 주제는 Dryden의 찬양시의 공식이 되어있다. 군주나 국가원수를 존경하고 순종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평화를 통하여 영국의 번영을 누리는 데 있다. Dryden의 찬양시의 의도도 이 번영을 위한 평화를 유지하자는 국민과 군주에 대한 호소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호소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시의 하나가 1660년의 왕정복고를 환영한 *Astrea Redux*이다. *The Heroic Stanzas*에 있어서와 같이 여기에 있어서도 그 찬양과 호소는 대체로 역사적인 사실에 토대를 두고 있으나 대부분은 군신 화합의 이상에 맞도록 수정되거나 과장된 이미지를 이용하고 있다. 323행으로 된 상당히 긴 이 시는 2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249행까지는 Charles가 영국에 돌아 오기까지의 경과보고를 구조(structure)로 하여 국민들이 그를 왕으로 받들만한 가치가 있게 보이도록 Charles를 왕으로서 이상화시키는데 정성을 들였으며, 250행 이하에 있어서는 Charles를 향하여 그의 관대하고 자비롭고 착한 성격을 강조하여 찬양하고 있다. Dryden이 그린 Charles의 모습은 실제의

그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때로는 반어적인(ironic) 칭찬으로 들리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그의 젊은 때부터의 방탕과 성적 문란은 잘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He, tossed by fate, and hurried up and down, / Heir to his father's sorrows, with his crown, / Could taste no sweets of youth's desired age: (51-53)"라고 동정한다. 이렇게 공허한 칭찬을 한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아첨이 아니라 군주에게 훌륭한 모습을 되풀이해서 피게 함으로써 군주가 실제로 그런 모습이 되도록하려는 목적이 있고 동시에 국민에게 그의 좋은 인상을 통하여 그를 존경하게 하는 계몽적 의도가 있는 것이다.

군신간의 화합의 당위성은 마땅히 결합되어야 할 남녀관계로 비유된다:

While our cross stars denied us Charles his bed,
Whom our first flames and virgin love did wed, (19-20)
Like early lovers, whose unpractic'd hearts
Were long the may-game of malicious arts,
When once they find their jealousies were vain,
With double heart renew their fires again. (211-14)

이러한 Charles와 생이별하고 있는 동안 영국민의 고생이 심했으나 그보다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은 Charles의 고난이다. 그는 이 고난을 영국민을 위해서 겪는다: How great were then our Charles his woes, / Who thus was forc'd to suffer for himself and us! (49-50) 여기에서 Charles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구세주의 모습을 띠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139-40행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 The Prince of Peace would, like himself, confer / A gift unhop'd without the Price of war. (139-40) 이 국민을 위해서 고난을 겪는 군주의 미덕은 Cromwell의 그것과는 달리 전쟁과 정복의 능력이 아니다. 그것은 수동적인(passive) 미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용기는 역경 속에서 참고 견딤으로써 그것을 극복한다(55-6). 그는 성급한 Otho처럼 운명에 거역하여 싸우지 않고 운명이 휘우칠 때까지 기다린다(67-8). 그는 이 고난에 단련되어서 신중한 통치술을 배운다(87-8). 그가 영국민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영국에 돌아오게 되는 경위도 갑작스럽거나 요란스럽지 않고 매우 부드럽다:

Yet as wise artists mix their colors so,
That by degrees they from each other go:
Black steals unheeded from the neighb'ring white,

Without offending the well-cozen'd sight:
 So on us stole our blessed change, while we
 Th' effect did feel, but scarce the manner see.
 Frosts that constrain the ground, and birth deny
 To flow'rs that in its womb expecting lie,
 Do seldom their usurping pow'r withdraw,
 But raging floods pursue their hasty thaw.
 Our thaw was mild, the cold not chas'd away,
 But lost in kindly heat of lengthen'd day. (125-36)

이 온화한 해동의 이미지는 Charles의 관대하고 자비로운 영향의 좋은 비유이다. 군주에 거역하던 패거리들도 가혹하게 처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햇빛과 같은 따뜻한 온정에 감화되어 반항을 버리는 것이다. 이 비유 속에는 또한 Dryden이 그 후 되풀이하던 주장, 즉 왕권 찬탈자의 통치하에서는 예술, 문화의 꽃이 피지 못하고 군주의 햇빛 아래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볼 수 있다. Dryden이 왕을 떠받들자고 하는 근본 취지는 이 문화, 예술의 창달에 있는 것이다.

군주의 관대, 인내력, 자비심은 후반부의 Charles에 대한 찬양에서 일층 더 강조되어 있다. 실상 국왕은 오직 이 미덕으로 찬양되고 있다.

Not tied to rules of policy, you find
 Revenge less sweet than a forgiving mind.
 Thus, when th' Almighty would to Moses give
 A sight of all he could behold and live;
 A voice before his entry did proclaim
Long-suff'ring, goodness, mercy in his name,
 Your power to justice doth submit your cause,
 Your goodness only is above the laws; (260-6)

군주의 이와같은 미덕은 군주 자신의 목적(cause)을 위해서 법(justice)을 어기지 아니하며, 군주의 인자함이 법을 초월하는 통치를 가능케 한다. *Absalom and Achitophel*에서도 이 주제가 되풀이되고 군주의 인자함 때문에 법의 준엄함을 잊어버린 선동자를 경고한다. 군주와 신하는 법이 정한 자리를 어디까지나 지켜야하되 군주는 신하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신하는 군주에게 존경으로 대하여 화합할 때 법은 문제가 안된다. 군주나 신하가 정해진 것 이상의 권리를 주장할 때 이 자비와 존경은 사라지고, 이것이 없어질 때 서로 법을 주장하고 법이 앞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법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이미 군신 간에 화목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주나 신하는 그러한 사태에 이르지 않도록 각자의 분

수를 지키고 은혜와 존경으로 서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 Dryden의 주장인 것이다. 그가 Charles의 자비와 은혜를 극구 칭찬하는 것은 그가 정말로 그런 미덕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영국민의 왕으로 돌아온 그가 앞으로 그러한 미덕으로 영국민에게 대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며, 만약 그렇지 않을 때 선왕의 전철을 밝게 될지도 모른다는 완곡한 경고인 것이다.

Dryden이 Charles에 투사하고 있는 관용과 자비의 미덕은 실은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이다. 즉 그는 Charles를 하나님같은 모습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그의 의도는 군주는 하늘의 섭리를 땅에서 피기위해서 보내어진 하늘의 대항자라는 생각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Dryden은 이 시의 여러 곳에서 Charles에게 구세주의 모습을 투사한 것이다. *Absalom and Achitophel*에서는 David, 즉 Charles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모시키는 것이 그 시의 주요 성과 중의 하나임은 잘 알려져 있다. *Astrea Redux*에서도 군주 Charles는 그 자신의 영웅적인 투쟁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랜 고난의 인내 끝에 자연, 또는 하늘의 섭리에 의해서 영국민에게 돌아 오게 되는 것이다.

이 수동적인 미덕은 군주에게 뿐 아니라 신하에게도 요망된다. 하늘의 섭리를 감수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자들은 헛되히 신(god)들을 흉내내는 자들로서 그들 자신의 재간과 꾀로 망하게 된다 :

Th' incens'd pow'rs behold with scorn from high
An heaven so far distant from the sky,
Which durst, with horses' hoofs that beat the ground,
And martial brass, bely the thunder's sound.
'T was hence at length just Vengeance thought it fit
To speed their ruin by their impious wit. (195-200)

Monk 장군이 Charles의 복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는 했으나 그 자신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이 그렇게 하도록 의도했기 때문이다 :

'T was Monk whom Providence design'd to loose
Those real bonds false freedom did impose. (151-2)

만약 그렇지 않다면 "Heaven's prefixed hour"가 오기 전에 움직인 "Booth's forward valor(145)"처럼 실패했을 것이다. *Astrea Redux*는

하늘의 뜻에 따르는 군주와 군민이 공동 목표로 뭉쳤으니 이제 영국은 세계의 바다를 지배하고 Augustus시대와 같이 국력과 예술이 함께 발전 하리라는 예언으로 끝난다. 이러한 바람직한 시대가 Dryden이 이 시를 쓴 이유의 하나이다 :

Our nation, with united int'rest blest,
Not now content to poise, shall sway the rest.
Abroad your empire shall no limits know,
But like the sea, in boundless circles flow. (269-9)

O happy age! O times like those alone
By fate reserv'd for great Augustus' throne!
When the joint growth of arms and arts foreshew
The world a monarch, and that monarch you. (320-3)

1661년의 *Charles*의 대관식을 경축한 *To His Sacred Majesty*에서도 그의 온화하고 자비로운 성품이 계속 찬양의 대상이다. *Astrea Redux*에서 그가 얼어 붙은 땅을 살며시 해동시키는 봄빛으로 비유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군주는 내란을 상징하는 대홍수가 지나간 다음, 물에 젖은 대지를 말려서 소생시키는 따뜻한 햇빛으로 비유함으로써 찬사가 시작된다 :

Thus, royal sir, to see you landed here,
Was cause enough of triumph for a year;
Nor would your care those glorious joys repeat,
Till they at once might be secure and great;
Till your kind beams by their continued stay
Had warm'd the ground, and call'd the damps away. (9-14)

홍수는 군주의 능동적인 활동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섭리에 의해서 물러간다. 군주가 비추어주는 자비의 햇빛도 섭리이다. 즉 군주는 하늘의 뜻을 이 세상에서 대행하는 섭리의 집행자다.

한편, 인자한 모습과는 반대되는 용맹스런 영웅의 모습으로 국왕이 묘사되는 귀절이 있기도 하다. 즉 *Charles*가 정무의 틈에 그가 즐겨하는 바다에 가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다 :

Undaunted here you ride when winter raves,
With Caesar's heart that rose above the waves. (103-4)

In stately frigates most delight you find,
Where well-drawn battles fire your martial mind. (117-8)

그러나 이 용맹스러움은 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결코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다. 국왕의 보호하에서는 물고기도, 새들도 모두 다 안전하다(116). 더구나 국왕의 바다에 관한 용맹은 그의 취미이지 공적 임무의 일부는 아니다(109-10). 따라서 충성스런 신하는 국왕의 Caesar와 작은 용기를 찬양하기 보다(106), 그의 관용의 미덕을 누누히 칭송하는 것이다(85-96). 그러나 *To His Sacred Majesty*도 단 찬양시와 마찬가지로 국왕 개인의 숭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국의 평화와 그 장래의 행복에 대한 염원으로 끝나는 것이다. 국왕이 좋아하는 바다와 Thames강을 통하여 많은 왕자를 낳아 줄 왕비가 올 것을 경축하는 동시에 그 왕비의 선택은 오직 영국의 평화와 그 자손들의 행복을 가져오도록 해달라고 기원하는 것이다 :

Choose only (Sir) that so they may possess
With their own peace their children's happiness. (135-6)

돌아온 군주를 받들고 온 국민이 단합하여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자하는 Dryden과 많은 영국인의 소망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일부에는 처음부터 국왕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던 분자들이 있었다. 이 분자들은 사사건건으로 왕정의 트집을 잡았으며, 특히 1665년의 흑독한 유행병과 1666년의 Holland와의 해전과 London의 대화재를 왕정에 대한 하나님의 노여움의 증거라고 선전했다. 자연, 민심은 중요하고 왕에 대한 반란의 기운 마저 싹트게 되었다. E.N. Hooker에 의하면 Dryden의 *Annus Mirabilis*는 이러한 선동에 대하여 민심을 국왕에게 유리하게 인도하여 또하나의 변란을 막아 보자는 의도를 담고 있다 한다 :

Conceived as a means to counter certain vague and superstitious terrors that filled the air, and in particular to oppose certain seditious tracts the effect of which, it was feared, would call the people forth to rebellion in times of disaster, *Annus Mirabilis* was developed as a plea that citizens should leave off their waywardness, pay their loyalty and obedience to their anointed leader, and vote him all the supplies which his purposes required. And the whole of it became an eloquent panegyric to trade, and a noble proclamation of Britain's manifest destiny.

이 주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겠으나 민심 수습이 이 시의 중요한 의도중의 하나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즉 Dryden은 Charles 2세에 대한 2편의 찬양시와, 특히 *Absalom and Achitophel*에서 하려고 하는 일, 즉 세습적 군주제를 지지하고 국민이 단합하여 번영을 이루고자하는 호

소를 *Annus Mirabilis*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상황의 긴박도에 따라 어조가 달라진다는 것일 것이다. *Astrea Redux*와 *To His Sacred Majesty*에서는 왕정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 속에서 국민에게 과거의 과오를 뉘우치고 너그러운 군주를 받들어 영국의 번영을 이룩하자고 부드럽게 권유한 것이라면, *Annus Mirabilis*에서는 유행병과 전쟁과 화재라는 잇달은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영국민에 대한 시련임을 강조하고 영명하고 자비로운 군주하에서 이것을 잘 극복해 낸 London 시민을 칭찬함으로써 군주에 대한 충성을 독려했고, *Absalom and Achitophel*에서는 군주의 자비로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날뛰는 일부 인사들을 호되게 질책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Annus Mirabilis*에는 상기한 정치적 의도와 더불어 문학적으로는 Dryden이 서사시와 같은 작품을 쓰려고한 흔적이 엿보인다. 이것은 이 시에 대한 설명을 하는 서문("Account of the Poem")에 있는 "I have call'd my poem *historical*, not *epic*, tho' both the actions and actors are as much heroic as any poem can contain."¹³⁾이라는 말에서도 느낄 수 있다. 여기에서 또한 Dryden에 있어서는 서사시는 영웅적인 인물의 영웅적인 행위를 그리는 시임을 알 수 있다. Dryden은 이 시에서 군주를 비롯하여 용맹스런 해군지휘관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한편 대화제를 이겨 낸 London 시민들의 영웅적인 행위를 묘사하고 찬양했기 때문에 이것이 서사시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에 그려진 군주의 모습은 서사시적 영웅의 그것과는 달리, 용감하고 활동적인 것이 아니라 단 찬양시에 있어서와 같이 평화를 사랑하고, 자비로운 미덕을 갖춘 모습이다. 이러한 미덕은 Dryden이 "A Discourse Concerning ...Satire"에서, 현대에는 기독교의 신앙 때문에 서사시가 쓰일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하여 기독교적 미덕을 갖춘 영웅을 주인공으로 하면 지금도 기독교적인 서사시를 쓸 수 있다고 주장할 때의 기독교적 영웅의 미덕과 가까운 것이다:

And 'tis true, that in the severe notions of our faith, the fortitude of a Christian consists in patience, and suffering for the love of God whatever hardships can befall him in the world; not in any great attempt, or in performance of those enterprises which the poets call heroic; and which are commonly the effects of interest, ostentation, pride and wordly honour. That

13) Noyes, p. 24.

humility and resignation are our prime virtues; and that these include no action, but that of the soul, whenas, on the contrary, an heroic poem requires, to its necessary design, and as its last perfection, some great action of war, the accomplishment of some extraordinary undertaking; which requires the strength and vigour of the body, the duty of a soldier, the capacity and prudence of a general; and, in short, as much or more of the active virtue than the suffering. But to this, the answer is very obvious. God has placed us in our several stations: the virtues of a private Christian are patience, obedience, submission, and the like; but those of a magistrate, or general, or a king, are prudence, counsel, active fortitude, coercive power, awful command, and the exercise of magnanimity, as well as justice. So that this objection hinders not, but that an epic poem, or the heroic action of some great commander, enterprised for the common good, and honour of the Christian cause, and executed happily, may as well written now, as it was of old by the heathens;¹⁴⁾

Annus Mirabilis에서는 서사시가 요구하는 어떤 거대한 사업, 위대한 전쟁행위에 필요한 능동적 미덕은 군주가 아니라 영국 함대의 지휘관인 Rupert 왕자와 Albemarle 공작에게 부여되고 있다. 특히 적진 정면에서 배를 멈추고 돛대에 높이 올라 선 Albemarle의 모습은 인상적이다:

*Heroes of old, when wounded, shelter sought;
But he, who meets all danger with disdain,
Ev'n in their face his ship to anchor brought,
And steeple-high stood propp'd upon the main.* (245-8)

이에 비하여 군주의 모습은 자비로운 국민을 위하여 고난 당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성자의 그것이다:

*Meantime he sadly suffers in their grief,
Out-weeps an hermit, and out-prays a saint.
All the long night he studies their grief,
How they may be supplied, and he may want.* (1041-4)

이와같은 자비로운 군주를 받들고 London은 불사조처럼 다시 살아나 세계적 상업중심지로서 발전하리라고 예언함으로써 만찬양시와 꼭 같이 영국의 번영을 회구하면서 시를 끝맺고 있다:

*Thus to the Eastern wealth thro' storms we go.
But now, the cape once doubled, fear no more;*

14) James Kinsley and George Parfitt, ed, *John Dryden: Selected Criticism* (Oxford: Clarendon Press, 1970), p. 219.

A constant trade-wind will securely blow,
And gently lay us on the spicy shore. (1213-6)

그러나 영국의 정치적 상황은 그후 반드시 Dryden이 희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았다. 1678년에 시작한 소위 "Popish Plot"을 계기로 하여 일부의 국민들이 왕위 계승 문제로 왕에 대립하여 또다시 내란 일보전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위기는 다행히 왕의 기지에 의해서 극복되기는 했지만 Dryden은 이 사건의 경위를 *Absalom and Achitophel*에서 묘사하면서 군주는 하늘이 정한 지상의 대행자임을 강조하고 그에 항거하는 어리석음을 꾸짖고 군주의 권위를 재확인시키려 한 것이다. 이 시는 정치적 풍자시라고 보통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반란 음모자들에 대한 비난과 아울러 왕의 충신에 대한 찬양과 특히 군주의 신격화가 주요한 목적이라는 점에 있어서 이시는 일종의 찬양시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초기의 찬양시, *Astrea Redux*와 비슷한 점이 많이 있다. 그중의 하나는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군주의 모습을, 법과 특권을 초월하여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의 모습과 일치시키려고 한 점이다. *Astrea Redux*에서 "군주의 선함(good)은 그의 하늘의 조상과 지상의 조상이 입증한다(256-7)"고 군주가 신의 후손이라고 전제한 다음, 군주는 신과 같이 자비롭기 때문에 법을 초월한 은혜의 정치를 베푼다(260-9)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에 있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David, 즉 Charles 2세의 신과 같음(godlike)과 그의 통치가 법을 초월하고 법이 필요없는 자비의 통치임이 되풀이하여 강조되고 있다. T.E. Maresca가 지적했듯이 *Absalom and Achitophel*의 처음 10행은 이 시 전체의 개념적 배경(conceptual concept)을 설정하기 위한 것인데, 이 배경은 법에 의한 통치(the dominion of law)와 은혜에 의한 통치(the dominion of grace)의 대조이다. David 즉 Charles는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하에서 신의 뜻에 따라 은혜의 정치를 베푸는 왕이라는 생각이 이 시 전체의 개념적 배경이다 :

David lives under the dominion of grace, in a kind of golden world where what nature prompts is after God's own heart: he embodies the conception of the divinely appointed king to whom law is irrelevant, who founds his dominion in God's will, in grace, and in his literal and metaphoric paternity of his people.¹⁵⁾

15) Thomas E. Maresca, *Epic to Novel* (Ohio State Univ. Press, 1977), p. 7.

이 은혜의 통치에 버릇이 없어진 국민들은 왕의 자비를 두려움으로 착각하여 은혜를 저버리고 법을 주장하니, 그것은 곧 죽음을 달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시의 최종부에서 왕은 어리석은 백성들 때문에 은혜의 통치를 하지 못하고 법의 칼을 빼들어야 하는 입장을 한탄한다 :

O that my pow'r to saving were confin'd!
 Why am I forced, like Heaven, against my mind,
 To make examples of another kind?
 Must I at length the sword of justice draw?
 O curst effects of necessary law!
 How ill my fear they by my mercy scan!
 Beware the fury of a patient man.
 Law they require, let law then show her face;
 They could not be content to look on Grace,
 Her hinder parts, but with a daring eye
 To tempt the terror of her front and die. (999-1009)

*Astrea Redux*에서도 Charles는 Moses에게 그 자비로운 뒷면만 보여 주는 하나님으로 비유되고 있음을 위에서 봤다.

이러한 군주에 항거하여 날뛰어 돌아다니는 반란자들의 모습도 이 두 시에 있어서 서로 닮은 데가 있다. *Astrea Redux*에서 양심을 죽이고 길으로는 영혼의 구원을 내세우면서 속으로는 황금을 노려 종교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191-4)은 *Absalom and Achitophel*에서는 바리새교적인 위선에 가득찬 Shimei같은 인물이다 :

[Shimei] Did wisely from expensive sins refrain,
 And never broke the Sabbath but for gain. (587-8)

또 사악한 피가 광기에 가까우리만큼 뛰어나서 교묘히 반란의 음모를 꾸미고 음흉하게 Absalom을 유혹하는 Achitophel은 *Astrea Redux*에서 이미 Sforza에 비유된 인물들로 등장하고 있다 :

'T was hence at length just Vengeance thought it fit
 To speed their ruin by their impious wit.
 Thus Sforza, curst with too fertile brain,
 Lost by his wiles the pow'r his wit did gain. (199-202)

이러한 자들은 스스로의 피로 망하리라고 *Absalom and Achitophel*의 David도 예언하고 있다 :

By their own arts, 'tis righteously decreed,
 Those dire artificers of death shall bleed. (1010-11)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군주관을 중심으로 한 Dryden의 정치관은 1660년 이후로부터 20년간 아무 변화도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 영국의 정치 상황에는 상당한 변화가 생겼고 또하나의 내란의 위기를 간신히 극복했다. 그리고 왕정복고 직후의 안정에 대한 희망과 기대는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 초기의 찬양시에는 없었던 이 불안감이 “흔든다(shake)”는 이미지로 *Absalom and Achitophel*에 나타나 있다. 흔든다는 것은 조용하고 평화롭고 안정된 상태에 갑작스런 변화를 일으키려고 한다는 것이다. 불같은 성질(firy soul)에 안절부절(restless)하고 광기에 가까운 재기(wit to madness near allied)를 발휘하지 않고서는 못견디는 Achitophel같은 인물이나, 시시각각으로 변하여 한 상태로 오래 있지 못하는 Zimri같은 인물들은 자비로운 군주의 선정하의 태평성대에 오래 안주하지 못하고 그것을 휘둘러 무엇이든지 간에 변화를 일으키려하는 것이다. Achitophel은 그의 공정하고 현명한 법관으로서 얻은 명성과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보수가 속히 오지 않음을 갑갑히 여겨 황금 과일 나무를 흔들게 시킨다 :

Achitophel, grown weary to possess
A lawful fame and lazy happiness,
Disdain'd the golden fruit to gather free,
And lent the crowd to shake the tree. (200-3)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하늘의 섭리에 따라 언젠가는 그 과일은 떨어지게 마련인데 그는 이것을 기다리지 못한다. Dryden은 여기에 있어서도 *Astrea Redux*에서와 같이 섭리에 대한 순응을 강조하고 있음을 본다. 신들린(enthusiastic) 과격파의 신교도들도 광기에 사로잡혀 질서를 흔들고 파괴만 하고 아무 것도 건설하지 못한다 :

'Gainst form and order they their pow'r employ,
Nothing to build and all things to destory. (531-2)

이 두 행에는 London의 대화재에 의한 파괴와 그 재건설의 이미지가 깔려 있을 가능성도 있거니와 “destroy”는 “shake”와 의미가 상통하는 말이다. 여기에서 질서있고 안정된 국가 사회는 건축물로 비유되어 있다. 이 건축물에 점진적인 개선을 가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급격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가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만 초래하는 대역죄가 되는 것이다 :

Yet, grant our lords the people kings can make,
 What prudent men a settled throne shake?
 For whatsoever their sufferings were before,
 That change they covet makes them suffer more.
 All other errors but disturb a state,
 But innovation is the blow of fate.
 If ancient fabrics nod, and threat to fall,
 To patch the flaws, and buttress up the wall,
 Thus far 'tis duty: but here fix the mark;
 For all beyond it is to touch our ark. (795-804)

안정된 국가가 하나의 건축물이라면 군주는 그 위에 군림하고 억누르는
 지붕같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지지 않게 지탱해주는 기둥이다 :

Kings are the public pillars of the State,
 Born to sustain and prop the nation's weight;
 If my young Samson will pretend a call
 To shake the column, let him share the fall. (953-6)

이 건물의 기둥의 이미지 만큼 Dryden의 군주관을 단적으로 상징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이것 이상으로 그가 모든 찬양사에서 군주에게 투사
 시킨 참고 견디는 수동적 미덕을 간결하고 생생하게 나타내는 것은 없
 다. 이 기둥은 능동적으로 활동하지 않지만, 한시도 거대한, 눈에 보이
 지 않는 힘을 늦추는 일이 없다. 이것이 군주의 힘이 작용하는 방식이
 다. 이 말 없는 힘은 막강하고, 그것을 흔드는 자는 자멸할 수 밖에 없
 는 것이다. 이러한 군주의 이미지는 Charles 2세의 서거를 애도한 *Thre-*
*nodia Augustalis*에서는 이 우주를 지탱하는 Atlas로 변하지만 그 근본
 개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

As if great Atlas from his height
 Should sink beneath his heavenly weight,
 And with a mighty flaw, the flaming wall
 (As once it shall)
 Should gape immense, and rushing down, o'erwhelm this nether ball;
 So swift and so surprising was our fear:
 Our Atlas fell indeed, but Hercules was near. (29-35)

여기에서 Hercules는 Charles 2세를 이어 군주가 될 그의 동생 James를
 뜻하거나 Atlas가 피곤할 때는 Hercules가 그대신 하늘을 떠받쳤다는
 신화에 대한 인유임으로 Dryden의 군주의 역할에 대한 개념은 아직도
 변함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군주의 모습은 실제와는 다를 뿐 아니라 상당한 거리가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Dryden이 그리고 있는 것은 그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군주상이다. 그는 그의 찬양시에서 군주에게 이상적인 속성을 부여함으로써, 그가 조금이라도 그 이상에 가까와지고, 그런 군주와 국민이 단합하게 되기를 바랐을 것이다. J.D. Garrison은 그의 매우 중요한 연구에서 찬양시(panegyric)의 기원은 공허한 아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의 여러 계층을 단합시키기 위한 연설이었음을 밝혀주고 있다:

As Philemon Holland's definition suggests, panegyric originates in the festivals of ancient Greece. Derived from the word *panegyris*, meaning "a general assembly," the panegyric was a speech delivered before a mass audience on a festival occasion.... The festival provided Isocrates not only with an occasion and an audience, but also with a serious subject: national reconciliation. The oration emphasizes the conciliatory purpose of the festival itself. ...The impulse behind both the festival and the festival oration, or panegyric, is the desire to promote domestic peace and national unity.¹⁶⁾

Dryden의 찬양시도 이와같은 panegyric의 전통의 영향을 받았음에 틀림없고, 또한 동시에 Erasmus가 지적한 찬양시의 또하나의 기능, 즉 군주에 대한 교육과 계몽도 중시했을 것이다:

By having the image of virtue put before them, bad princes might be made better, the good encouraged, the ignorant instructed, the mistaken set right, the wavering quickened, and even the abandoned brought to some sense of shame.¹⁷⁾

Dryden의 생각에는 국민과의 단합에 가장 필요한 군주의 속성은 무용이나 통치 능력보다, 자비, 인내, 관용이었고 이러한 군주의 미덕은 찬양시에서 뿐 아니라 정치시에서도 항상 강조하고 있음을 이제까지 관찰해 왔다. 이러한 군주의 성품은 물론 찬양시의 전통에 따랐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내란과 반란에 의해서 군주를 참형시킨 일이 있는 국민, 자칫하면 또다시 반항할 가능성이 있는 국민과의 화해와 단결을 위해서는 특히 그와 같은 군주의 미덕이 필수적이라고 Dryden은 생각했을 것이다.

16) James D. Garrison, *Dryden and the Tradition of Panegyric*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1975), pp. 7-8.

17) Erasmus, "Epistle 176", *The Epistles of Erasmus*, ed. and trans. Francis Morgan Nichols, 3 vols. (London, 1901), I, 366-367. 상기 James D. Garrison에서 재인용.

그러나 그는 아무 통치자나 군주에게 무조건 천편일률적으로 이런 미덕을 투사시킨 것은 아니다. Cromwell, Charles 2세 및 James 2세에 대한 찬양을 비교해 보면, 역사적인 사실과 사회적 필요에 따라 찬양되는 미덕의 측면이 약간씩 상이함을 볼 수 있다. 앞에서 고찰된 바와 같이 Cromwell에 있어서는 그가 이룩한 평화와 번영에 찬양의 중점이 놓여 있지만 그의 능동적 미덕, 즉 그의 탁월한 전술과 통치력 등이 전혀 무시되어 있지는 않다:

Swift and resistless thro' the land he pass'd.
Like that bold Greek who did the East subdue;
And made to battles such heroic haste,
As if on wings of victory he flew. (49-52)

For from all tempers he could service draw;
The worth of each with its alloy he knew. (97-8)

Charles 2세에 대하여는 이러한 미덕을 찬양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었다는 것은 Dryden에게 매우 다행한 일이었을 것이다. Charles에게는 그렇게 할 역사적 사실이 없었고 그에게는 국민과의 단합이 우선 지상 과제이기 때문에 그에게 요구되는 것은 서사시적 영웅(epic hero)의 미덕 보다는 그가 "A Discourse Concerning... Satire"에서 피력한 것과 같은 기독교적 영웅(Christian hero)의 미덕인 것이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과 정치적 필요성 때문에 Dryden의 군주관의 이념을 투사시키는 대상으로서는 아마도 Charles 2세가 가장 적합했을 것이다.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Threnodia Augustalis*에서도 역시 Charles의 기독교적 미덕을 찬양했다:

In scanty truth thou hast confin'd
The virtues of a royal mind,
Forgiving, bounteous, humble, just, and kind: (334-6)

그리고 이러한 덕망으로 이룩한 평화, 자유, 학문, 예술의 번영을 찬양하고 있다. 그의 장려로 설립된 왕립협회(Royal Society)의 과학적인 공적, Christopher Wren 등이 이룩한 건축, Purcell의 음악, Dryden의 문학을 생각할 때 이 찬양은 결코 헛된 아침이 아니다. 이에 비하면, 이 시에서 보이는 James는 "A warlike prince"로서 전쟁에 능하고 용맹스러운 모습, 즉 서사시적 영웅의 모습을 띠고 있다. 이것은 그가 실제로 1650년대에 France에서 군인으로 잘 싸웠고 1660년대에는 화란과의

해전을 지휘한 사실에 입각한 것이다. 따라서 Dryden은 James에게 Charles와 비슷한 덕망을 투사하지 않고 James의 용맹에 의해서 영국이 외국을 누르고 세계의 바다를 지배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군주로 모실 것을 국민에게 호소한다 :

...there appears
The long retinue of a prosperous reign,
A series of successful years,
In orderly array, a martial, manly train.
Behold ev'n to remoter shores,
A conquering navy proudly spread;
The British cannon formidably roars. (506-12)

Dryden이 그린 이 세 군주의 모습에서 확실한 것은, Dryden의 군주의 초상은 비록 실제 인물과 상이한, 이상화된 모습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원칙도 없이 되는 대로 미화시킨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 역사적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Absalom and Achitophel*의 서문에서 Dryden은 자기가 발명가, 또는 창작가(inventor)가 아니라 역사가(historian)임을 주장했거니와 그 시에는 많은 창작이 혼합되어 있어서 그의 주장을 의심스럽게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영국 역사와 유대 역사에 어느 정도는 근거를 두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은 Dryden의 군주의 초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Dryden이 그린 인물이 Joel Blair가 주장하는 것처럼 얼굴만 달리한 동일인물이라는 견해는 상당한 과장이다.¹⁸⁾ Dryden은, 능동적 미덕을 띠게 시킨 James를 국민들이 군주로 받아들일도록 호소하는데 자신이 없고 대단한 곤란을 느끼고 있음을 *Threnodia Augustalis*의 종말부에서 역력히 볼 수 있다. 제15 및 16연에서 James가 어릴 때부터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으나 그것을 극복하고 단련이 되어, 이제는 “a monarch ripened for a throne”이 되었고, 그의 시련은 완전한 군주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이었다(437-445)고 전제한 후, 제17연에서는 어진 로마의 왕, Numa를 이어받은 용맹한 Ancus에 James를 비유하면서, 그가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영국을 깨워 무기를 들게 하리라(470-2)고, 그의 호전성을 강조했다으니, 이러한

18) Joel Blair, “Dryden’s Ceremonial Hero,”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Vol. 9, No. 3, 1969, pp. 379-93. Robert McHenry and David G. Lougee, ed., *Critics on Dryden*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Ltd, 1973), pp. 76-88에 수록.

군주를 받아들이라고 국민에게 설득할 자신이 없는지, 최후의 연에서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지 못하고 거의 절망적인 어조로 하늘을 향하여, 국민이 James가 좋은 군주인 것을 깨닫게 해 달라고 기원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Let them with glad amazement look
 On what their happiness may be;
 Let them not still be obstinately blind,
 Still to divert the good thou hast design'd.
 Or with malignant penury,
 To sterve the royal virtues of his mind. (496-501)

Dryden이 Charles에 관해서 이렇게 비관적인 때는 없었다. 정치적 상황의 변화의 영향도 있겠으나, James의 서사시적 영웅의 미덕 만으로는 군주로서 불충분하다고 느꼈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Dryden이 군주의 미덕으로서 자비, 관용, 인내 등의 수동적 미덕, 즉 기독교적 미덕을 으뜸으로 보는 이유는 이제까지의 관찰로 미루어 보아 아마도 다음과 같을 것이다 : 즉, 그러한 미덕을 갖춘 군주가 국민과 화합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군주이며 이런 군주하에서 평화가 유지되면 군주의 미덕은 그의 특권을 억제하고 법을 초월한 통치가 이루어져서 국민은 자유를 누리고, 이 자유에서 국문과 학문과 예술의 신장이 달성된다는 것이다. 의지력, 결단력, 통솔력, 행정능력 등과 같은 능동적인 미덕이 우월한 군주는 오히려 국민의 자유를 빼앗기 쉽다. 그 능력 때문에 국민 생활의 모든 면에서 간섭하고 통제하기 때문이다. Dryden이 세습적 왕위의 시초가 하나님에게서 유래했고 그것이 정말로 신성 불가침하다고 믿었는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듯이 17세기는 과학정신이 대두하기 시작한 시대로서 현대에 넘어 오는 과도기였다. Dryden도 이 과학정신을 알고 있었음이 확실하다. 그가 한때 왕립 협회의 회원이었다는 것이 이것을 입증할 것이다. 그가 왕위는 신성하다고 주장한 이유는 그의 타고난 보수주의적 성격 때문일 것이다. 그는 자신의 말로 선천적으로 소심(diffident)하다 했고,¹⁹⁾ Congreve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the most modest”했다고 한다.²⁰⁾ 이런 성격의 사람은 Bredvold의 주장과 같이 기정사실을 기정사실대로 인정하는 보수적 태

19) Kinsley and Parfitt, p. 200.

20) McHenry and Lougee, p. 2.

도를 취하게 된다. 따라서 그는 세습적 왕조에 대해서도 그 기정 사실 및 기득권을 인정하고 거기에 따르자는 것이다. 세습적인 군주는 개인적으로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우선 오랜 왕족의 혈통을 배경으로 한 권위가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권위에 바탕을 둔 왕정제도에 약간의 결합이 있다하여 이것을 무너뜨리고 공화제로 대체하려 한다는 것은 공연한 소동을 부리는 일이다. 공화제의 설립이 성공한다하더라도 그 통치자에게는 세습적 군주가 누리는 위신과 권위가 없어, 자칫하면 세력의 중심점을 잃어 무질서 상태에 빠지거나 독재자에 의한 절대 전제정치로 빠지기 쉽다. 이것이 바로 Dryden과 기타 온건한 국민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태이다. 공화제 통치자의 능력이 크면 클 수록 그의 독재는 참기 어려울 것이다. 전제정치는 공화제이건 군주제이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Dryden의 정치관의 중심은 군주에 의한 찬탈자(usurper)에 의한 간에 이 전제정치(tyranny)를 용납못한다는 것이다. 이 전제정치를 막는 제도는 공화제 보다는 온건한 군주에 의한 통치라는 것이 Dryden의 소신이었을 것이다. Achitophel이 Absalom을 유혹할 때 "The Jews well know their power."라고 했거니와 Dryden도 영국민의 왕에 항거하는 힘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국민을 다스리자면 왕은 그의 특권을 남용하지 않고 국민의 의사를 가급적 존중해 주고 그들과 타협해 나가야 한다. 이리하여 군주의 권능과 국민의 권리가 서로 극단적인 주장을 버리고 완전한 균형을 이룰 때 영국민은 군주 밑에서 안전한 자유를 얻는다는 역설적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Our temp'rate isle will no extremes sustain
 Of pop'lar sway or arbitrary reign,
 But slides between them both into the best,
 Secure in freedom, in a monarch blest. (*The Medal*, 248-51)

이러한 이상적인 상태는 왕의 지지자(tory)뿐 아니라 그 반대자(whig)도 바라는 바일 것이다. 그들이 "limited command", 즉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는 군주에 의한 정치를 주장한 것은 자유의 폭을 넓히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Dryden과 반왕파는 그 정치관에 있어서 방법이 다를 뿐이고 목적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1688년의 명예혁명에 의해서 반왕파의 바라는 대로 군주의 권한에 심한 제한이 가해졌고 오늘날 영국의 왕은 정치적 권한이 거의 없어진 상태이지만 지금도 영국민의 대부분은 영국의 군주제도가 영국민을 결속시키고 독재자의 출현

을 방지하는 데 그 어떤 구실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있었던 영국 황실의 결혼식에 즈음하여 한 미국의 주간지는 영국 황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평하고 있다:

Many critics of the monarchy have become less censorious in the face of the apparent dangers of an "imperial Presidency" like that of Valery Giscard d'Estaing in France or Richard Nixon in the United States. The democratic argument for maintaining a monarchy rests partly on the belief that it can prevent any political leader from exploiting the mystique of the state. The British system, which separates the power from glory, appears more attractive in the face of the dangers abroad. It was this argument that convinced George Orwell of the advantages of monarchy: "It is at any rate possible," he wrote in 1944, "that while division of functions exists a Hitler or a Stalin cannot come to power."²¹

우리는 여기에서 Dryden의 군주관이 오늘날 아직도 영국민의 마음 속에 살아 있는 전통임을 볼 수 있으며, 그 전통의 강인함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것이다.

21) *Newsweek*, Aug. 3, 1981, p. 16.